

장흥군, 생약초 가공·체험 공모사업 성과보고회 개최

공모사업 유치 통해 신활력플러스사업 일환으로 사업 진행 “참여업체·농가 우수 성과물 홍보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장흥군은 지난 18일 목재산업지원센터에서 ‘생약초 가공·체험분야 지원 공모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날 성과보고회는 가공농가와 체험농가의 그동안 추진실적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흥군은 공모사업 유치를 통해 신활력플러스사업의 일환으로 생약초 가공·체험분야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장흥군의 신활력플러스사업은 생약초를 기반으로 오일을 추출하고, 오일을 바탕으로 만든 생약초 화장품 개발사업과 생약초 오일을 이용한 피부관리 사업을 상품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제품개발에 필요한 생약초 원료가 중요한 만큼 생산자들의 매출향상을 돕기 위해 공모사업으로 마케팅, 기자재구입, 컨설팅, 브랜드 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다. 가공업체 중 황칠나무를 주원료로 제품을 생산하는 ‘명인황칠’은 황칠인센스, 허브진액을 만들고 있다. ‘에이치씨바이오텍’은 여주환, 함초환을 주원료로 소양증(가려움증) 개선 바디로션을 생산한다. 약용식물을 주원료로 제품을 생산하는 ‘산

야초마을’은 약초사전 APP제작 등의 사업을 진행하였다. 라벤더 관련 체험 프로그램, 동백오일 테라피, 어드벤처링 체험 프로그램, 유자오일 활용 체험 프로그램 등도 개발되어 소개되었다. 에이치씨바이오텍 윤병진 대표는 “신활력사업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생산자 네트워크를 통한 교류와 공동마케팅이 필요하다”며, “우수 성과를 홍보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흥군 관계자는 “참여업체와 농가에서 만들어낸 우수한 성과를 홍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생약초 농장들의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로 테라피 체험뿐만 아니라 농장 체험 또한 관광요소로 느낄 수 있도록 돕겠다”고 전했다.



장흥=김도영기자

강진군, 7월까지 옥외광고물 양성화 기간 운영

관내 고정 광고물 전수 조사착수

강진군은 옥외광고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7월까지 불법옥외광고물에 대한 양성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요건을 갖춘 불법광고물에 대해

허가·신고 절차를 안내해 양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전수조사는 조사원이 모든 업소를 방문해 업소명, 광고내용, 간판종류, 표시장소, 규격 등을 확인하고 전수조사표를 작성한 후 업주에게 양성화 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다. 2월 말까지 전수조사를 마무리하고, 2월~4월까지 1차로, 5월~7월까지 2차 양성화

기간을 운영한다. 불법 광고물 양성화란 「옥외광고물 법」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한 광고물 중 허가·신고를 받지 않았거나, 연장 허가·신고를 받지 않은 불법광고물에 대해 합법화하는 행정구제방식이다. 1차 양성화 기간에는 허가·신고, 안전점검 수수료 등이 전액 무료이며, 2차 양성화 기간에는 허가·신고 수수료는 무료이나 안전점검 수수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양성화 기간 이후 불법광고

물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행강제금, 강제철거, 고발 등)을 할 예정이나, 전액 무료로 진행되는 1차 양성화 사업기간 내에 자진신고 해줄 것을 당부했다. 위길복 건설과장은 “이번 전수조사로 관내 옥외광고물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올바른 옥외광고문화를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주민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강진=김영일기자

완도군,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선정’ 100억 원 확보

완도군이 해양수산부 주관 ‘2023년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총 사업비 100억 원을 확보했다. 지난 8월 해양수산부에서는 5년간 지속 가능한 수산업·사람이 돌아오는 어촌 구현 등 도약하는 해양 경제, 활력 넘치는 바다 공동체 구현을 위한 4대 전략을 세우고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 그중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은 2019년부터 추진한 ‘어촌뉴딜300사업’의 후속 사업으로 어촌 지역의 소멸 위기를 막고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특히 전국 어촌을 ‘경제 플랫폼, 생활 플랫폼, 안전 인프라’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어촌의 정주 여건 및 생활 편의성을 개선한다. 군은 어업 종사 가구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전북 특화 마을인 망남리에 어민들을 위한 어업 활동 공간, 전북 체험을 하러 오는 관광객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등을 갖춰 ‘다도해 첫 마을’로 조성해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자 공모 사업을 준비했다. 해양수산부에서 38개 자치단체 사업을 평가하였으며, 완도군이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내년부터 4년간 100억 원(국비70, 도비9, 군비21)을 투입해 망남리의 사회·경제·지리적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한다. 망남항은 완도군 전체 전체 전복 생산량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특화마을을 조성 및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여 귀촌·귀어 인구를 늘리고, 정주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어업 기반 확충과 지역 소득 증대에 보탬이 되는 물론 사업·창업·운영 등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완도=기동취재본부

진도군, 도명·동육항 어촌 신활력증진사업 공모 선정

진도군이 해양수산부 주관 ‘2023년 어촌 신활력증진사업’에서 의신면 도명항·조도면 동육항 2개소가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해양수산부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어촌마을에 청년 귀어인구 유입을 위한 주거 기반과 일자리 마련, 어촌자원을 활용한 경제수익시스템 구축, 주민을 위한 어촌생활권 문화복지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은 2개소 신활력증진사업에 총사업비 100억원을 투입해 2027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의신면 도명항·조도면 동육항에 어항시설 정비, 마을 환경 개선, 진입로 정비 등 안전기반시설 관련 사업을 추진해 안전하고 활기찬 어항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실시한다. 군은 이번 사업이 낙후된 어촌지역 현안사업 해결 등 지역 어촌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도=조상용기자

해남군·농협 해남군지부, 설 귀성객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눈길’

“해남에 기부하세요” 고향사랑답례품 ‘해남고구마빵’ 2023개 증정



해남군은 20일 광주 고속버스터미널 야외광장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캠페인은 고향사랑기부제 협약기관인

농협중앙회 해남군지부(지부장 김계열) 직원들도 함께 참여해 설 명절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도시민을 대상으로 고향사랑답례품 중 하나인 ‘해남고구마빵’ 2023개를 나눠주고, ‘해남사랑위더스’ 회원 행사도 가졌다. ‘해남사랑위더스(with us)’는 주소지가 해남이 아니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며 회원에게는 해남군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 숙박, 레저, 관광 등 가맹점 할인 혜택이 있는 회원증을 발급해 우대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해남군 고향사랑기부금 기부자는 별도 가입 신청없이 해남사랑위더스에 자동가입되며, 오는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명원관 해남군수는 “앞으로도 우리 해남군을 사랑하고 응원해주시는 분들께 다양한 우대 혜택을 제공하여 해남에 방문하실 때 고향의 사랑과 환대를 느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해남=기동취재본부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오!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